

“국민과 함께하는 소방으로”

'90년대를 여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전국 소방관 및 소방관계인 여러분의 가정에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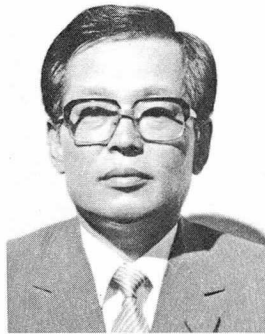
지난 한해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증가하는 화재사고에 비례하여 현격하게 사건을 억눌러온 희생적인 봉사 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소방은 늘어만가는 소방수요에 부응하여 예방, 경계, 진압은 물론이고 응급환자의 구급과 현장에서의 인명구조업무에 이르기까지 격무를 감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여건은 발전하는 고도선진산업사회로의 이행과 더불어 소방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화재의 양상 또한 다양화, 대형화되어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대가 비춰주는 소방의 과제를 예측하여 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경제사회 구조상의 변화속에 맞는 '90년대의



김 덕 영
〈내무부 소방국장〉

시발은 소방공무원 내부적인 문제로부터 전국민적인 방호예방의 체제면에 새로운 변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새해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먼저 새해의 역점시책은 국민소방역량의 강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이 시민 모두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불로부터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나 오늘의 상황은 이들 모두의 화인들을 살피고 불의 현장에 곧바로 달려가서 불과 수분내에 진화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우선 차가 막혀서 달릴수가 없고, 관리하여야 할 대상이 너무도 많아 졌으며 더욱 인위적인 화재가 날로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가정에서, 영업장이나 공장은 그 관리인이 불씨를 막고, 불이 난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가 손을 쓰게 하는 체제로 바꾸어 가는데 우리의 모든 지혜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각 개개인이 불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지금까지의 평면적 계몽홍보체제를 탈피하여 앞으로는 직접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계몽효과가 나타나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입체적인 소방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

다. 지역 단위별로는 자율소방단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최소한 통리단위 요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각 직장별로는 실질적인 예방요원과 소화조직이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이들 조직이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할 교육계몽요원을 확대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는 전소방관이 계몽
요원에 대한 교관역할을 다해야 하
겠으며, 의용소방대와 소방관계인
여러분 또한 그 일익을 담당해 주
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시설의 강화입니다.

대중수용 건물마다 초기 경보시설
을 갖추고, 건물은 구조적으로 내화성
을 갖춘 불연 구조화하여 내부연소를
지연시킬 수 있도록 내장재는 불연재
료를 스스로 선택하여 설치하고, 소화
시설을 항상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
록 관리하여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
하는 슬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장 발생률이 높은 주택화재에
방을 위하여 가정마다 소화기를 비
치하여 대비해주시고, 도시건물의
고층화, 지하화 추세에 대비하여
이들 고층 및 지하시설에는 자동소화
시설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인명피해의 최소화 대
책입니다.

근래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의 보호시설인 측면도
있겠지만 방범창살 때문에 화재시에
대피하지 못하고 가족 모두가 화염속
에서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볼때 실로 마음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참상을
거울삼아 구조적으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토
록하여 주시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소방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국가공
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구조능
력을 배양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소방체계를 갖
추어 나가는 일입니다.

화재신고체제로부터 현장정보를
가장 신속히 가장 정확히 전달하고

지령통제할 수 있는 핵심기능인 통
신시설을 체계화하고 현장상황을
지상과 공중에서 조감하여 효율적
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복합체계를
유지하여 신속 정확한 진화작전체
계를 갖추는 완벽한 소방태세확립
에 우리 모두의 심혈을 기울여 나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앞에 전개되는 새해는
'90년대를 여는 해로서 우리들에게
벽찬 희망과 더불어 힘겨운 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소방인 모두가 어
려움을 피하지 않고 의연히 대응하
여 훌륭히 극복하여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국민모두가 화재위험으로
부터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과
과업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을 굳게 다짐합니다.㉞

